

# 올해 무형유산 공연 포문 연다

국립무형유산원, 6일 개막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 개최... 농악·동해안별신굿 등 다채롭게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6일 오후 4시 일주마루 대공연장에서 올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풍장, 새 길을 열다'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을 중심으로 동해안별신굿, 판소리, 적벽가, 경기민요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무형유산의 예술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무대로 펼쳐진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새 길을 열어 평화하고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샘굿'으로 진행된다. 무가(巫歌)와 장단,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불러내는 샘굿'과 농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악을 선보이는 '맞이하는 샘굿'으로 구성된다.

먼저, '불러내는 샘굿'에서는 동해안별신굿 김동연 전승교육사의 문굿으로 시작해 액을

쫓고 평안을 기원하는 처용무, 농악의 치배와 악사들이 새 시대를 위한 큰 뜻을 펼친다.

이어 판소리 운진철 보유자가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을 농악의 다양한 진법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전남무도농악 김동연 보유자의 <장구춤>과 이육금 명인의 <소고춤>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한지장 흥춘수 보유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하나로 뭉쳐 새로운 소원을 만들어 공연의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맞이하는 샘굿'에서는 연희단체 '연희점추리', 여성농악단 '연희단팔산대',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는 밴드 '학단광찰', 한국 전통악기와 현대 악기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밴드 <잠비나이>의 리더 이일우 씨까지 한데 모여 현대적인 도시의 음향으로 새로운 곳을 펼치는 '도시 굿'이 벌어진다. 이후 경기민요 강효

주 이수자의 <스타령>을 감상한 뒤,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함께 연주를 펼치는 <합굿>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맡은 전재현 연출은 "농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형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막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무형유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 관광두레 PD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5일까지 전북 관광두레 PD(이하 PD) 410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단에 따르면 '관광두레'란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했으며, PD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모 대상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된 3개 시·군(전주시, 완주군, 임실군)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활동할 PD다.

선정된 PD에게는 교육과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jeonbuk.tourbiz.or.kr/)이나 해당 지역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 예술 지원사업 통합공모

전주문화재단, 신진 예술가·공연예술·오디오북 제작 등 지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이 2024년 전주 예술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통합공모에는 △전주 신진 예술가 지원 △공연예술지원 △시각예술 국내 교류지원(전주·제주 교류전, 전주·성남·부산 교류전) △오디오북 제작지원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주 예술계의 미래를 견인할 전주의 젊은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는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은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예술 전 분야의 미발표 창작품과 실현 되지 않은 예술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한다.

이는 참신한 신인의 등용문 역할이 될 <처음 발표지원>과 성장 발판이 될 <디딤발표지원> 등 2개 유형으로 공모를 추진하며, <처음발표지원>은 예술계 데뷔 경험이 없는 만 19세~만 30세를, <디딤발표지원>은 예술계 데뷔 이후 예술활동경력 10년 이내인 만 19세~만 3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 예술가는 6명 내외며, 총 3,600만 원의 시상금 형태(무정산)의 지원금, 전시·공연 등 작품 실연 공간,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과 리뷰, 작품발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공연예술지원'은 11월 중 실연 가능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창작초연>과 <우수 레퍼토리>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되며, 지원금 규모는 총 5,200만 원이다. 재단 산하 공연장 등 공간지원과 2024 공연예술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선정작 홍보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세번째로,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은 올해 교류 지역 및 선정 대상을 확대, 모집한다. <전주·제주 교류전>은 개인전 5회 이상의 전시 이력을 가진 만 45세~만 65세 중견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총 8명의 시각예술가를 선정한다. 작품임대료 200만 원과 교류 전시, 도록 제작,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며, 제주 예술계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전주·성남·부산 교류전>은 만 19세~만 44세 젊은 시작예술가를 대상으로 3명의 작가를 선정해 전주를 포함한 3개



도시 예술가의 교류 전시와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성남·부산 교류전>은 4월 중 별도로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오디오북 제작지원'은 올해 총 7종의 미발간 작품을 선정, 제작부터 유통, 마케팅, 정산까지 지원한다. 특히 판매수익을 유통사가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작품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다.

재단 관계자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지원 대상은 보다 섬세하게, 지원 내용은 더욱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했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jjcf.or.kr)나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진안군, "19세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 선착순 60명 지원

진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19세 청년(2005년 출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60명에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문화예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민법상 성년이 되는 전국 19세 청년에게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 예스24' 중 한 곳을 선택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을 거쳐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원(국비)은 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5만원은 진안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직접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중국 칭다오시와 예술관광 분야 교류 협력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전북대 박물관-칭다오시문화창의산업협회,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엄혁용), 중국 칭다오시문화창의산업협회(협회장 왕젠강)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운 대표이사, 엄혁용 전북대학교 박물관 관장,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왕젠강 칭다오시문화창의산업협회장, 세린하이 칭다오은행 문화창조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2023년 8월 중국 정부의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하고, 국제관광시장 회복 추세의 기회를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칭다오 간의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와 관광객이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칭다오 관광객이 전북자치도 지역으로 흡수되고, 코로나19 이후 추축한 석도-군산-해리를 통해 단체관광객이 유입 될 경우 글로벌 관광도시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세 기관의 대표단은 전북자치도와 칭다오의 문화관광 교류 방안, 그리고 각 기관이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엄혁용 박물관장은 전북자치도와 칭다오 간의 관광 분야 교류를 포함해 도내 중국



유학생 비중과 문화예술분야가 지닌 중요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모두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젠강 협회장은 "앞으로 칭다오와 전북자치도 모두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칭다오시에서 진행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자치도가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중국 칭다오시와의 문화예술관광 교류 분야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제안하게 됐다"며 "전북자치도 도민과 칭다오시 시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상호 간의 문화예술·관광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